전주공동체 '온두레' 사업 본격화

시 공모 통해 64개 사업 선정 보조금 지원

전주시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육성하기 위한 2016년형 '온두레'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올해 온두레 공동체 사업대상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서류와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64건의 공동체사업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5명 이상의 주민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창업 등을 추진하는 '소규모공동체' 40건과 10명 이상의 거주민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12건 등 디딤단계로 총 52건을 선정했다. 또, 지난해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경쟁력 있고 지속 성장 가능한 공동체인 이음단계로 12건을 확정했다.

이들 공동체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공동체별 컨설팅 후 보조금이 확정되며, 지원금액은 소규모공동체가 300만원 이내, 마을공동체의 경우 600만원 이내, 이음단계 800만원 이내 등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한 온두레 공동체사업 설명회와 다양한 공동체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사업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가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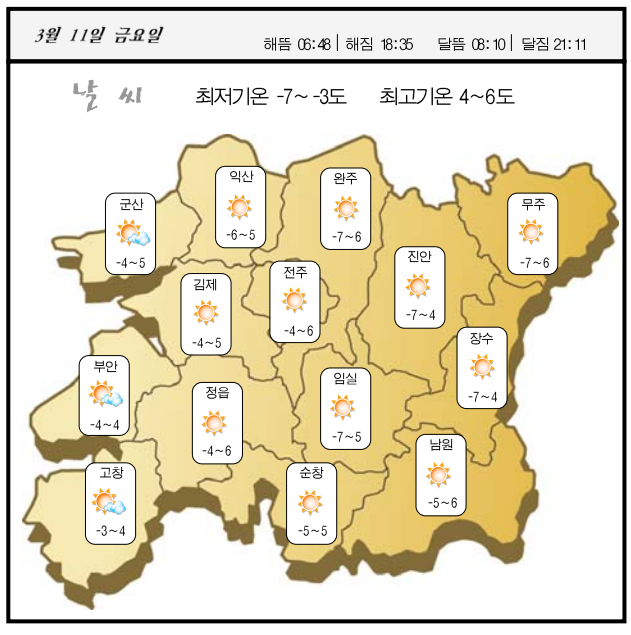
소규모공동체로 선정된 '동네빵집 사람들' 임재호 대표는 "전주 동네빵집 장인들이 모여 지역 동네빵집들의 건전한 육성과 전주 빵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전주 최초 제과점인 동그라미제과점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공동체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이 공동체를 협동조합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디딤단계 사업들이 이음단계로 성장해 나가고, 이음단계의 사업의 경우 공동체사업의 완성단계인 희망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올해 온두레 공동체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총 135건의 지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체 사업내용 설명, 사업 계획서 작성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다.

박선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벗어나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가 자리잡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형 공동체사업 BI(Brand Identity) 명칭공모를 통해 '온두레'로 정하고, 첫 사업 대상으로 소규모공동체 60건, 마을공동체 10건 등 70건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2016 내나라여행박람회' 전북관광홍보관 운영

'새로운 발견' 주제
도, 7개 시군 공동으로
10개의 홍보부스 설치

전북도가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6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전북 관광홍보관을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운영한다.

'내나라여행박람회'는 연인원 10만여명이 참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로서 올해에는 약 300여개 지자체 및 여행사가 500여 부스를 운영한다.

도는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과 공동으로 10개 홍보부스를 운영 중으로 수도권 관광객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맛 멋, 소리의 고장인 전북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북관광자유이용권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홍보가 주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축제 안내, 관람객과 함께하는 각종체험행사 및 이벤트, 우리 지역 고유 특산품 전시·판매와 홍보영상물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행사장 메인무대에는 전주 국악팀 '오지락'의 국악실내악 공연을 선보여 소리의 본향인 전북도의 문화적 우수성을 선보인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정착지원 민관협의체 추진상황보고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3차 민관협의체 추진상황보고회가 10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정치권,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 참석하여 열린 가운데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사 2일째인 11일에는 국내 굴지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북 관광상품 및 인센티브 설명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관광객 모객이 이뤄질 수 있는 세일즈콜을 실시한다.

도는 각종 관광박람회에 시군과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해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패스라인 등 도를 단일의 관광지로 부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 유근주 관광총괄과장은 "우리 도의 관광자원과 유서깊은 문화자원 및 축제 등을 집중 홍보하겠다"면서 "특히 전북관광자유이용권,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역점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광홍보관 행사에 지속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도교육청, 귀향 관람·안중근 의사 묘역 참배

전북도교육청이 3월 잇따라 역사교육과 관련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본청 직원 200여명은 오는 15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다룬 영화 귀향을 관람한다. 이번 영화 관람에는 김승환 교육감도 함께 한다.

도교육청과 전북 역사교사모임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6주년을 맞은 26일 중고등학생 60명과 역사교사 동아리 6명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안중근 의사 가묘와 삼의사 묘를 참배하고 김구 기념관을 관람한다.

학생과 교사들은 헌화와 참배행사를 가진 뒤 독립 운동가들이 투옥됐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역사공원도 관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1절 등 뜻 깊은 달을 맞아 일제 강점기시대의 아픔과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자는 차원에 마련된 행사"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도로정비 전국 우수기관 선정

지원금 5000만원 받아

10일 전북도는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로정비 평가에서 도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지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전국 34개 기관(지방청, 시도)을 대상으로 관광객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 것에 대한 평가였다.

이 평가에서 도는 지방도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내실화, 부실공사 방지, 성실시공 노력,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사업성과 및 추진실태를 현지 방문실사를 통한 종합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도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총 6,314㎞을 정비 중에 있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국립무형유산원 상생협력 워크숍

전주시는 10일 국립무형유산원과 상생협력 워크숍을 갖고 국내·외 무형유산의 계승발전과 지속적인 발전 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주시와 국립무형유산원 실무자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 기관의 전통문화와 무형유산 등에 관한 업무를 공유하고, 향후 무형유산 정책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양 기관이 협력해 추진 중인 문화창조 브릿지(인도교) 설치 이후 한옥마을과의 연계방안, 무형유산원 주변 토지매입 및 활용방안, 세계무형유산박람회개최에 대한 분임별 토론을 실시하는 등 현안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재 기자